

##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인도자 : 가족 대표

###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 찬 송 ..... 198장 ..... 다같이

1.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하늘이 어둠에 싸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된 것을 안돌아 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2.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싸여서 사니 날 붙들여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까 지금 죽게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3.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서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후렴)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놀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 기 도 ..... 가족 중

### 성경봉독 ..... 마가복음 4:35-41 ..... 인도자

### 설 교 ..... “ 고요하라 잠잠하라 ” ..... 인도자

### 기도(합심기도) ..... 설교자/다같이

1. 소유하지 않고 소통하며 나누는 7월이 되게 하옵소서.
2. 여름 사역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3. 전도통합예배를 준비하며 예비신자를 걱정하고 축복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잠잠하라 고요하라

마태복음 4:35-41

성경에는 광야에서 떠돌거나 바다에서 항해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인생이나 신앙생활을 바다 항해에 비유할 수 있다. 바다는 생명을 공급하는 수단이면서도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항해하다 풍랑을 만났다. 인생도 순탄한 길이 예상되는 곳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풍랑을 만난다. 그때는 저물 때다. 인생의 밤에 만나는 어둠은 두려움의 온상이다. 길을 잃고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고, 현실을 과장하고 왜곡하며, 공포와 혼란이 밀려온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셔서 이루어진 일이다. 인생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목적지는 정해 주셨지만 그 과정을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으신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풍랑이 이는 배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더 많이 알수록 자신감도 커진다. 사진이 암실에서 인화되듯이 믿음은 어둠 속에서 가장 잘 자란다. 하지만 제자들은 두려워했다. 제자들의 안목은 너무 단기적이다. 제자들은 캄캄함, 바다, 풍랑, 밀려드는 물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없는 것 한 가지에 너무 몰두하지 말라. 아직도 있는 많은 것들을 한번 보라. 어둠 너머, 폭풍 너머, 수평선 너머로 펼쳐질 사명, 비전, 자신감을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들리는 것에 사로잡혀 진짜 들을 소리를 듣지 못하기도 하고, 보이는 것에 정신이 팔려 진짜 볼 것을 보지 못하기도 한다. 이런 때는 사명을 붙들라. 예수님의 목적은 거라사 지방에 가서서 무덤에 쇠사슬로 매어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것이다. 사명이 확실하면 풍랑을 이길 수 있다.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예수님은 풍랑 이는 바다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고 제목을 <아, 이 평안>이라고 붙이고 싶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계시고 우리 인생의 배 안에도 계신다.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제자들은 주님을 깨웠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려움이 닥치면 ‘죽게 되었다’ ‘돌아보지 않는다’ ‘망했다’ ‘끝이다’ ‘불가능하다’ ‘방법이 없다’라고 불평, 불신, 원망하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 부탁, 믿음, 확신을 가져야 한다. 제자들은 폭풍 속에서 두려움을 넘어 죽음을 상상하고 있다. 예수님의 평안과 제자들의 두려움이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다. 우리는 두려움을 먹고 산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두려움을 무릅쓸 때 조금씩 성장했다. 내가 두려움을 감수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사방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널려 있다. 두려움이 올바르게 사용되면 해로운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 그러나 막연하고 모호한 두려움은 우리를 위축시키고 자신감을 잃게 만든다. 인생 대부분의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서움과 믿음은 서로 대격으로 나와 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상태요, 믿음은 온갖 두려움을 몰아낸다. 두려움은 광풍만을 보는 것이요, 믿음은 구원자 주님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은 곧 바다를 고요하게 하셨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은 자연현상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사와 사탄의 시험까지 잔잔하게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해답이다. 예수님은 바다의 거친 물결과 거센 바람만 잠잠케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조차 평정하셨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두려워할 일만 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워할 일이 없다.